

Jeep Story

2019 Vol. 08

Jeep Story 2019 Vol.08

CHARISMA



QR코드를 찍고 Jeep를 경험해보세요!
www.jeep.co.kr   

Jeep[®]

CHARISMA

Jeep Story

2019 Vol. 08



Jeep Lineup



2019 Vol.08

Jeep Story

Content



06

Charisma

Charismatic Jeep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외모부터 압도하는 Jeep Wrangler는 동해안의 거친 모래 폭풍 속에서도 거뜬하다. 파워풀한 4X4 시스템으로 오직 전진만을 외치며 달리는 Jeep만의 Charisma를 만나보자.

16

My Jeep Story

Camping Odyssey

박지운 |
디자이너·FIFTY 대표
야생에서 즐기는 캠핑 라이프.
거칠거나 유연하거나.
날것 자체인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디자이너 박지운의 선택은
Jeep Wrangler다.
아누스의 얼굴로 자연에
대처하는 Wrangler의
카리스마를 만나보자.



CHARISMA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이에게 주어지는 칭호, '카리스마(Charisma)'. 이번 호에서는 Jeep가 뽐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주제로 다뤘다.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탄 사람은 없다는 Jeep만의 유전자와 본능을 찾아가는 여정 속으로 함께 질주해보자.



26

My First Ride

Edge Wave

김민호 | 서퍼·클럽 아웃풋 대표

폴리네시아인의 후예처럼 바다 위 파도와 사는 서퍼 김민호. 이른 새벽 해무를 헤치고 즐기는 서핑 이야기와, 서퍼들의 차로 알려진 Jeep와의 만남은 짜릿함 그 자체다. 부산 송정 해변에 뜬 블랙 컬러의 시크한 Overland와 함께 더 거친 파도를 찾아 질주해보자.



36

Test Drive I

BORN TO BE WILD Renegade

디테일과 야성을
동시에 갖춘 Renegade.
작고 귀여운 인상과 다른
180도 반전 매력,
이것이 진짜 Renegade다.

40

Closer Look at Jeep

Renegade의 치명적 매력, 이스터 에그

소형 SUV Renegade 속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함께 찾아보자. Jeep의 디테일과 감성, 알고 타면 두 배 더 즐겁다.

42

Test Drive II

Grand Cherokee Limited-X

도시 드라이빙과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마성의 매력, 주행과 실내의 탐험을 통해 그 진면목을 살펴보자.

50

Event

Jeep Camp 2019



Jeep Camp 2019, 짜릿한 오프로드 체험과 Jeep 가족이 하나 되어 즐겼던 신나는 엔터테인먼트의 현장 속으로 고! 고!

54

Charisma in Social Media

56

Brand News

58

Jeep Lineup

63

Service Center

CHARISMATIC

Jeep

사회심리학자 레베카 뉴턴은 '진정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구하는 슈퍼 히어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스며있는 것'이라 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독보적인 자동차로서 그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동차들 틈에서 그저 존재감만으로도 그 세계를 평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다. DNA부터 남다른 Jeep Wrangler가 그렇다. 치명적인 카리스마로 못자동차 사이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는 Jeep만의 매력을 만나보자.

Charisma

‘카리스마 *Charisma*’는 사람이나 대상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어떤 기운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는 그리스어 Kharisma에서 시작된 것으로, 초기에는 ‘재능’ 혹은 ‘신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아 종교적인 용어로 주로 쓰였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막스 베버가 권력의 한 형태로 해석하면서 능력이나 매력, 자질 등의 의미로 굳어져 현재 통용되는 ‘카리스마’로 자리잡았다.

카리스마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무엇보다 넘치는 에너지와 자신감, 추진력, 열정, 수용능력 등이 꼽힌다. 또 적당히 호감가는 비주얼 요소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Jeep의 카리스마만한 것이 또 있을까 싶다. 혹자는 Jeep의 모양새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만으로도 카리스마가 충분하다지만, 뭐니 뭐니 해도 Jeep Wrangler는 내적으로 품고 있는 강력한 성능에 카리스마의 뿌리를 두고 있다.

DRIVING FORCE

Jeep의 4x4 시스템은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축적된 4륜 구동의 기술력으로,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르는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Selec-Trac 4x4 시스템은 주행 조건에 따라 2륜 구동에서 4륜 구동으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험난한 지형이나 악천후 속에서는 4륜으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평탄한 길 위에서는 다시 2륜으로 전환해 연비까지 절약하는 센스를 발휘한다. 꺾이지 않지만 때에 따라 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나무의 유연함까지 지닌 셈이다. 자갈이 튀고 먼지가 뽀얗게 이는 비포장 도로는 물론, 물기를 단단히 머금은 해변가의 묵직한 모랫벌에서도 구동력을 뽐내며 길을 박친다. 이때 탁월한 접지력을 발휘해, Jeep Wrangler는 지면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카리스마의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위인이나 정치가의 공통점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강력한 추진력이다. 또한 Jeep Wrangler는 성능과 연비까지 고려한 2.0L의 터보 엔진으로 매끄러운 변속과 가속으로 남다른 추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TRAIL RATED®

어디 그뿐인가, 모든 All New Wrangler는 미국 군용차 평가기관 '네바다 자동차 테스트 센터'에서 부여받은 트레일 레이티드(Trail Rated®) 배지를 달고 있다. 이는 가장 험난한 오프로드 테스트를 거쳐 성능을 인증받은 표시로, 카리스마의 자격을 대신하는 훈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Jeep Wrangler는 모험을 즐기고 스스로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길 위의 친구가 되어준다.

대자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존재로 만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납게 날을 세우며 돌변하기도 한다. Jeep Wrangler는 대자연에 존재하는 그 틈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깊거나 낮은 물 웅덩이 속에서는 아가미를 달아 물을 차단하고 급커브길에서는 기동력있게 회전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바위, 통나무, 진흙, 눈길 위에서 변신한다. Jeep Wrangler는 중세시대 기사와 같을만큼이나 강력한 스틸 스킵 플레이트를 장착한 덕에 하단부의 연료 탱크를 비롯한 중요 장비를 거뜬하게 보호한다. 전설적인 Jeep의 4x4 시스템과 트레일 레이티드 배지가 다시 한 번 반짝인다.





TALENT

시대를 아우르거나 대표하는 것에는 항상 히스토리가 존재한다. Jeep Wrangler는 윌리스 Jeep부터 지금까지 변모해 왔지만, 고유의 정신과 DNA만큼은 그대로다. 또한 Jeep만의 둥근 헤드 램프와 세븐 슬롯은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멀리서도 단번에 Jeep임을 알 수 있다. 시원한 오픈 에어링을 경험하고 싶다면, 소프트탑이나 하드탑, 전자동 파워탑으로 자연과 하나되는 개방감을 만끽하는 일도 Jeep Wrangler가 갖고 있는 재능 중 하나다. 또 Jeep Wrangler는 험난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Jeep와 운전자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이 많다. 사이드 미러의 열선 내장은 기온차로 김이 서리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단번에 해결하고, 실내 버튼과 토글 등 러기드 소재를 사용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또 넓은 트렁크 공간과 트레일 레일 시스템으로 캠핑이나 간단 작업시 테이블의 용도를 충분히 수행한다. 아날로그적인 재능에 디지털적인 요소까지 추가해 Jeep Uconnect와 스마트폰 연결과 음성명령 기능으로 편리함도 빠뜨리지 않는다.

클래식한 Jeep의 아이코닉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고 오프로드의 주행 성능까지 고루 갖춘 Jeep Wrangler는, '신이 내린 선물'의 의미를 가진 카리스마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남은 일은 여기에 신비로운 포스로 방점을 찍어, Jeep Wrangler 신화를 만드는 것이다. **Jeep**



My Jeep Story

MY JEEP Story

누군가는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캠핑'이라고 말한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야외에서 먹고 자며 일상에서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봐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타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Jeep'라고 말한다.

길 위에서 맞닥뜨리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초연하게 대처하는 우직함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 있다고.

이 둘의 공통점은 변화무쌍한 야생에서 철저히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했다는 것이다.

디자이너 박지운은 캠핑과 Jeep를 모두 즐기는 고수 캠퍼다.

미니멀 스타일의 캠핑과 모험의 또다른 이름, Wrangler를 타고 떠나는 그의 여정에 함께 올라타보자.



Camping Odyssey

야생에서 즐기는 캠핑 라이프. 거칠거나 유연하거나.
날것 자체인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디자이너 박지운의 선택은 Jeep Wrangler다. 때론 거칠게, 때론 부드럽게.
아누스의 얼굴로 자연에 대처하는 Wrangler의 카리스마를 만나보자.

캠핑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를 온전히 야생에서 해결하는 일이다. 사서 고생일 수도 있지만, 편리함만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 한번쯤 경험해 봐도 좋은 불편함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찰스 레이모는 그의 저서 '1마일 속의 우주'를 통해,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가는 1마일의 길을 '또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강조했다. 고작 3000 걸음에 해당하는 거리지만, 그 길에는 숲과 자갈, 개울, 바위, 들꽃 등이 펼쳐져 세상 만물을 고스란히 느끼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캠핑도 각자의 우주를 만들고 찾기 위한 시간이다. 'FIFTY'라는 이름의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박지운 대표는, 틈나는대로 자신만의 우주를 부지런히 만드는 캠핑 매니아다. 가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떠나는 '솔로캠핑'과 여럿이 함께 즐기는 '가족캠핑'을 오가는 고수 캠퍼로, 짜릿한 야생을 즐기는 중이다.

오로지 캠핑을 위해 Wrangler를 선택했어요. 아버지와 처음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캠핑으로만 온전히 14년의 시간을 쌓아온 박지운은, Wrangler를 선택한 이유를 문자 아주 간단명료했다. 캠핑은 많은 장비들을 챙겨야 하고 그 부피와 무게까지 떠안아야 하는 짐과의 싸움까지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미니멀'과 'Wrangler'였다. 캠핑 장비를 하나둘씩 정리해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꼭 필요한 장비를 분류해 무게가 가벼운 것들로 바꿔 다시 채워넣었다. 여기에 이동이 편리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넣고 빼는 편의성까지 따져보니 답은 'Wrangler'. 그것이 캠퍼 박지운과 Wrangler의 첫 인연이었다. 그가 이십대 후반 낚시터에서 우연히 Jeep 트렁크에 올라앉은 근사한 중년 남자를 마주한 이후, 마음 속 한편에 품고 있던 동경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하다.

박지운
디자이너
FIFTY 대표

그의 캠핑에는 두 가지 철칙이 있다. 미니멀과 Wrangler. 자연에서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의 성능을 뽐어내는 이 조합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한껏 비워냄으로 채울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오는 것이다.
캠핑을 통해 덧셈이 아닌
뺄셈을 배우고,
일상에서도 미니멀을
제대로 실천해 가고 있다.**

투박하니까, Wrangler인거죠. 이 땅의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렇듯, 디자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구되어지는 고도의 작업이다. 따라서 수시로 머릿속을 비우고 채워넣는 자기 노력까지 디자이너의 몫이다. 박지운은 이때 스스로에게 솔로캠핑이라는 과감한 처방전으로, 최소한의 짐을 싸 하룻밤의 노숙을 선택한다. 그곳에선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다시 간단명료하게 답한다. 그렇다. 그는 캠핑의 장비뿐 아니라 캠핑의 방식까지 미니멀이었다. 한껏 비워냄으로 채울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오는 것이다. 캠핑을 통해 덧셈이 아닌 뺄셈을 배우고, 일상에서도 미니멀을 제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 듯했다. 자신의 삶까지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 문득 Wrangler의 디자인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 슬쩍 물었다. 전통을 고수하는 부분이 매력있단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현대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쏟아부으려는데 반해, Jeep는 성능과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되 디자인 요소만큼은 초기 오리지널리티를 꾸준히 유지하는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 Wrangler의 그 투박함이 오히려 든든하다고 하니, 이 또한 Wrangler만의 독심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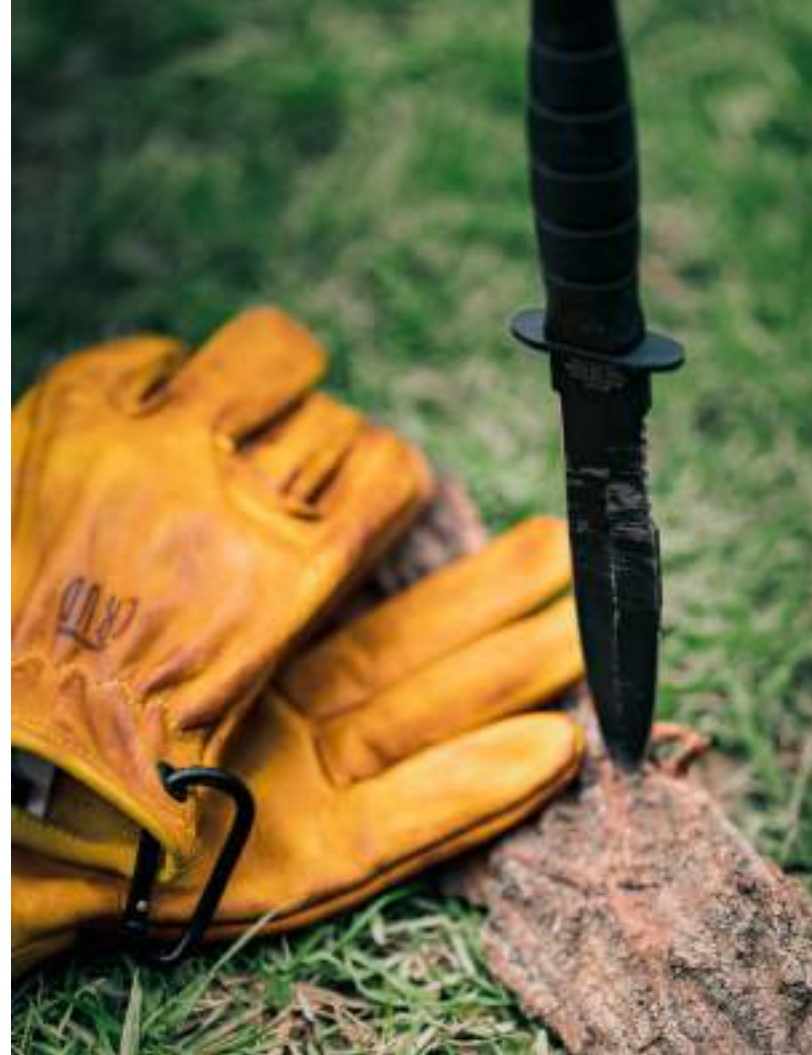


우중 캠핑과 겨울 캠핑은 캠핑의 꽃입니다. 소위 한뼘잠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아 자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캠핑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비 오고 눈 내리는 날씨는 캠핑 금지 일순위로 여기지만, 고수 캠퍼에게는 오히려 정반대다. 박지운은 이른 아침 텐트 밖으로 첫발을 내딛을 때 맞이하는 눈 풍경을 최고로 꼽으며, 이 광경을 마주할 때마다 소름 돋을 만큼 아름답다고 한다. 왜 아니겠는가. 어느 누구의 손 하나 발자국 하나 올려지지 않은 깨끗한 그 자체가 진짜 자연일테니, 그 또한 운 좋은 캠핑에서 기대해 볼직하겠다. 또 변화무쌍한 날씨에 Wrangler는 든든한 벗이 되어준다. 험난한 지형 조건과 마주해도 자연에 순응하는 대신 일단 도전해보는 배짱 덕분에, 강이나 시내를 거뜬하게 건너 자연으로 보다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의

변화무쌍한 날씨에 Wrangler는 든든한 벗이 되어준다. 험난한 지형과 마주쳐도 자연에 순응하는 대신 일단 도전해보는 배짱 덕분이다.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Wrangler의 카리스마가 아닐까.

내려놓으니 다 보이더군요. 캠핑장에서 만난 박지운의 장비들은 진짜 소박할만큼 간결했다. 주변의 여러 텐트를 훑기 쳐다보니 이삿짐 수준의 많은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역시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캠퍼의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 부탁하자, 아주 잠깐 침묵이 이어졌다. 순간 자신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갔단다. 먼저 누군가의 캠핑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경험해 보라고 전했다. 장비부터 챙겨 길을 나서는 일보다 실제 캠핑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체득한 후 준비하라고 추천했다. 또 스스로



캠핑하면 으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함께 간 사람들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 끊임없이 무언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시작이 된다며 일단 버리란다. 무념무상으로 모두 내려놓으면, 다 보인다. 니 그의 미니멀은 이제 하나의 철학으로 자리를 굳힌 모양이다.

이제 곧 길고 긴 인생 캠핑을 떠나려 합니다. Wrangler 오너로서 '캠핑과 Wrangler'를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는 요청에 박지운의 답은 칼같이 단호하다. '그냥 접니다.' 심오한 답일 수 있으나 듣는 순간, 확 외닿았다. 디자인 작업 자체가 궁극의 결과물을 향해 정해진 길을 달리는 행위라 어쩐지 감친 느낌이 들어, 틀에 박히지 않고 형태없이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 캠핑, Wrangler를 즐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학창시절의 꿈인 '요리'를 위해, 내년에 스페인 유학길에 오른다. 그간의 캠핑을 통해 배운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주 길고 먼 인생 캠핑을 떠난다. 그곳에서 어떤 길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계속 도전해 기록을 깨나가는 Jeep 정신으로 헤쳐나갈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으로 최대한의 자연을 품는 캠핑과 Jeep만의 방식으로 말이다. 비워도 묵직하고 모자라도 무거워지는 삶을 깨달은 디자이너 박지운의 또다른 도전과 모험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Jeep**



MY First RIDE

서핑은 적도를 기준으로 남태평양 부근의 폴리네시아 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바다 위에 흩어진 1000여 개의 섬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자생해 지금에 이른 것만은 분명하다. 망망대해의 자연 속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된 서핑이
이제는 극강의 짜릿함을 즐기는 스포츠가 되어,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급부상 중이다.
'아웃풋' 힙합 클럽 대표 김민호는 일찌감치 파도 맛을 알아버린 열혈 서퍼다.
아침 저녁 바다에서 파도 끼니를 채우는 그가,
서퍼들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Wrangler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봤다.



Edge Wave

바다 위 파도와 사는 서퍼 김민호.
이른 새벽 해무를 헤치고 즐기는 서핑 이야기와
서퍼들의 차로 알려진 Jeep와의 만남은 짜릿함
그 자체다. 부산 송정 해변에 뜬 블랙 컬러의 시크한
Overland와 함께 더 거친 파도를 찾아 질주해 보자.

영화 '라이드:나에게로의 여행'은 지나치게 간섭하기 좋아하는
뉴욕커 엄마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대학생 아들과의 갈등
을 다룬다. 하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볍게 배우는 서핑 입
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영 좀 한다며 겁도 없이 보드
하나 달랑 들고 호기롭게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파도에 만신창
이가 된 주인공이, 인생 느즈막이 서핑을 배우는 과정이 꽤 자세
하게 묘사된다. 그렇게 파도를 타기 전과 후로 삶이 바뀐 주인공
만큼이나 서핑으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이가 있으니, 바로
서퍼 김민호다. 8년 전 우연하게 접한 서핑의 인연으로 부산 송
정 바다 근처에 동지까지 튼 그는, 일반 사람들의 새벽 조깅을 즐
기듯 이른 아침이면 해무를 벗삼아 파도를 가른다.

“서핑은 참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스케이트 보드를 타면 길거리
가 놀이터가 되고 테니스를 치면 코트가 하나의 놀이터가 되는
것처럼, 서핑을 하면 내 주변의 바다가 모두 놀이터가 돼요. 아
니 놀이터로 보이게 되죠. 한발 더 나아가 바다를 보는 시각이나
관점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어딜 가더라도 바다가 있는 곳이면
나만의 놀이터가 되는 셈이죠. 어떤 산이든 일단 정상에 오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바다 위에 누워서 엄청난 파도가 나를
뒤덮고 또 그 파도를 타고 지나갈 때의 느낌은 정말 소름끼칠만
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행의 관점도 달라져서, 맛집이
나 랜드마크가 아닌 그곳의 바다를 찾다니게 되고 여행지의
기억과 추억까지 전부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서핑의 매력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마치 파도를 타고 있는 듯
했고, 그의 눈은 발등에 새겨진 타투 '남쪽소년'이라는 단어를 대
변하듯 순수하게 반짝거렸다. 길을 달리는 스케이트 보드와 눈
위를 달리는 스노보드에 열광하다 마침내 물 위를 달리는 서핑
에 빠져들면서 잠깐 서핑을 업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좋아하



Photographer: Kim Do Won



는 일은 취미로 즐길 때가 최고인 법. 지금은 부산 서면에 위치한 클럽 '아웃풋^{Output}'을 운영하며 동시에 브랜드 디렉팅과 마케팅 관련 일을 꾸준히 하는 중이다.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색다른 페스티벌과 파티를 열고 서울의 유명 디제이를 초빙해 부산만의 클럽 문화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특이하게도 그의 클럽은 매일 밤이 아닌 불금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만 열린다. 매일 근사한 파도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아웃풋'의 밤 또한 한정으로 운영해 그 희소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심플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과 삶의 비율을 20:80으로 조절했죠. 클럽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서핑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요, 이게 의외로 좋은 거예요. 돈은 남들보다 덜 벌어도 일단 행복해요. 예전엔 성격도 급하고 일찍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스트레스와 짜증이 장난 아니게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 느긋

김민호
서퍼 ·
클럽 아웃풋 대표

그 누구도 염두내지 못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실천하는 김민호는, 일과 삶의 비율을 20:80으로 운영 중이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몸과 마음 하나는 살맛난단다.

하게 바뀌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민해질 일도 없고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오래도록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찾은 방법이었어요."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이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여전히 요원하다. 서퍼 김민호가 과감하게 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핑 때문이었다. 서핑은 많은 이들이 시원한 바다와 서핑 보드만 있으면 탈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스포츠다. 탄탄한 수영 실력은 기본이고 온몸의 평형 감각도 고르게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또 바닷속의 물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까지 고려하는 등 파도를 길들여 나와 하나가 되도록 고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서퍼와 보드가 제압했을 때 그제서야 파도는 곁을 내려준다. 이렇게 시종일관 밸



My First Ride



런스를 유지해야 가능하니, 김민호의 20:80의 워라밸 철학도 가능한 것이다. 서핑은 거칠고 박력있는 스포츠임에 틀림없다.

“얼마 전까지 Jeep를 몰았어요. 개인적으로 SUV를 선호하는 편이었고, 서핑을 즐기다 보니 Jeep만한 차가 없었죠. 2014년에 Rubicon 4도어를 구입해 편하게 보드를 싣고 다녔죠. 하드탑을 오픈하고 달리면 시원한 바람이 말 그대로 사방에서 불어와, 서핑하고 난 후 드라이빙이 제일 신났습니다. 오직 Wrangler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개방감이 진짜 예술이었죠. 사실 이 서핑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익스트림 스포츠거든요. 거친 바다와 파도를 상대하는 서핑은 말그대로 자연과의 한판 대결이라는 점에서 어쩐지 Jeep와 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Jeep는 WSL(세계 서핑 연맹 World Surf League)의 공식 파트너로, 많은 프로 서퍼 선수들의 발이 되어 맹활약 중이다. 더 사나운 파도를 찾는 이들에게 서막과 암석, 진흙, 물웅덩이를 거침없이 달려 극한의 서핑 장소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Jeep의 몫이다. 서퍼 김민호도 Jeep의 사냥 본능에 진즉부터 매료되었고, 이제 두 번째 Jeep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매의 눈으로 바람과 물결을 살피다 매력적인 파도를 낚아채듯, Rubicon Power Top 모델을 낚아챌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노라 고백한다.

“서핑은 그저 스포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서핑을 하다 보면 삶의 생각이나 관점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옷 입는 취향이나 음악 듣는 기호까지 바뀌거든요. 외국에서는 서핑과 클럽, 페스티벌, 요가, 명상 등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는 단계라, 저 역시도 서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품고 사는 중입니다. 물론 Jeep와 함께 말이죠.”

이번에 시크한 블랙 컬러의 Overland를 직접 몰아본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좋았고 내부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편의 사양에 엄지를 들어보였다. 부산에서 그를 만나러 가는 길 위에서 마주친 많은 이들이 Jeep에 유난히 깊은 호의를 보여준 것도, Jeep만의 카리스마 때문이었으리라. 세계적인 서퍼 선수 '레이드 해밀턴'은 '파도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며 기록을 깨는 모든 사람은 우월할지 어다. Jeep처럼! **Jeep**



BORNTO BE WILD Renegade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외유내강^{外柔内剛}’이라는 말을 쓴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유순해 보이지만 그 속은 꽤 단단하고 강해, 이상적인 인간형을 대신하는 말이기도 하다. 차로 따져본다면, 아마 Renegade가 지닌 성향이 아닐까 싶다. 길 위에서 달리는 모양새로는 귀여운 봉봉카의 느낌이지만, 그 속에 고이 감춰진 본능은 야성 그 자체다. 외유내강형의 스탠다드, Renegade를 만나보자.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기준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중장년의 모임에선 이순에 이르는 나이일지라도 막내라면 잔심부름을 해야 하고, 청소년이 모인 자리라면 15살이라도 장유유서를 논할 수가 있다. 소형 SUV라는 수식어를 달고 Jeep 가문에 태어난 Renegade는, Jeep Wrangler나 Grand Cherokee 사이에선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의 역할이다. 게다가 인상으로 따져봐도 둥글면서도 각진 모양새가 차라리 애교에 가까울 정도다.

하지만 일반 SUV와 나란히 자리잡으면, 커다란 덩치와 골고루 퍼진 잔근육의 몸짱처럼 그렇게 하우대가 좋을 수 없다. 첫인상과 180도 다른 반전 매력이 바로 Renegade다.

Renegade는 반항아 같은 기질에 자유로운 모험 정신을 담아, 여행이나 아웃도어를 즐기는 젊은층을 공략한다.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오프로드 성능은 물론 온로드에서는 민첩한 주행이 가능해, Jeep만의 매력도 고스란히 전달한다. 지형 설정

시스템 셀렉-테레인™(Selec-terrain™)은 눈, 모래, 진흙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처세술까지 지녔다.

최고 출력 175마력, 최대 토크 23.5kg·m의 2.4L 멀티에어2 타이거샤크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파워풀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뒷좌석 40:20:40 패스-스루 방식으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서브 우퍼를 포함해 9개의 스피커로 락과 클래식을 넘나들며 음악감상을 즐길 수 있다. 드라이빙과 디자인, 성능, 제원을 꼼꼼히 짚어보면 역시 Jeep 가문의 지니어스임을 인정하게 된다.

올초 2019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한 '비키니 펄' 색상으로 새옷을 입은 Renegade는, 수상 스포츠 매니아들을 위한 톨레의 전문 약세서리까지 장착, 9월부터 국내 총 20대 한정으로 판매 중이다. 저 멀리 디테일과 야성을 겸비한 Jeep 한 대가 나에게 달려온다면, 답은 하나다. Renegade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Jeep**



Photographer Kim joo won

Closer Look At Jeep

이스터 에그(Easter Egg)는 부활절 달걀에서 유래한 것으로, 요즘은 게임이나 프로그램 속에 개발자가 살짝 숨겨놓는 장치나 기능을 의미한다. 위트와 유머가 이스터 에그의 핵심! 장난꾸러기마냥 섬세한 Jeep 디자이너들이 여기저기 숨겨놓은 이스터 에그는 Jeep 오토들에게 깨알같은 즐거움을 준다. 이번에는 소형 SUV Renegade 속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함께 찾아보자. Jeep의 디테일과 감성, 알고 타면 두 배 더 즐겁다.

월리스 Jeep

Wrangler에서도 자주 만났던 월리스 Jeep는 Renegade의 윈드실드에서도 열일한다. 햇빛을 받으면 길게 뻗은 월리스 Jeep의 그림자까지 자갈길을 따라올라 험난한 오프로드를 즐기는 형상이다. Renegade도 달리고, 월리스 Jeep도 달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BORN TO BE WILD.

아이코닉 Jeep 그릴

Jeep 전차량의 아이코닉 디자인 중 하나인 Jeep 그릴은 프론트 라디에이터 세븐 그릴을 형상화한 것이다. 장난기 가득한 개구쟁이 모양새의 Jeep 그릴은 Jeep의 상징으로, Renegade의 트렁크와 테일 램프, 룸미러, 스피커 등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일 봐도 귀여운 Jeep 그릴, 오늘도 안녕!

빅풋 Bigfoot

Renegade의 후면 윈드실드에는 빅풋 Bigfoot이 산다. '빅풋'은 북아메리카 록키 산맥에서 목격된다고 전해지는 동물로, 그 존재는 아직 증명된 바 없다. '사스콰치'로도 불리며 이는 인디언 부족의 말로 '털 많은 거인'이라고 한다. 운전 중 룸미러를 흘깃 보다가 뒷유리 열선을 길삼아 걸어오르는 빅풋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즐거움이라니.

스펑키 스파이더

주유구의 문을 열면 오른쪽 하단에 섹시한 거미 한 마리가 살포시 자리잡고 앉아,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던진다. "Ciao, Baby." 소형 SUV의 귀여움은 아마 이스터 에그가 단단히 한몫하는 듯하다.

개스캔 X

2차 세계 대전 당시 월리스 Jeep에 싣고 다니던 보조연료통을 형상화한 개스캔 아이콘 또한 많은 곳에 숨겨져 있다. '제리캔'이라고도 불리며, 로고와 천장, 테일램프, 컵홀더 등 Renegade 구석구석 숨바꼭질 중인 개스캔 X를 찾아보자.

Grand Cherokee LIMITED-X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탁월한 주행성과 넉넉한 차체,
그리고 안정감 있는 주행성이 주는 신뢰성. 이것이 Jeep Grand Cherokee의 매력이다.
여기에 특별한 감각을 더한 한정 모델 Grand Cherokee Limited-X를 만나보자.



Grand Cherokee Limited-X

당치만으로도 압도되는 Grand Cherokee,
도시 드라이빙과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마성의 매력,
주행과 실내의 탐험을 통해 그 진면목을 살펴보자.

Jeep Grand Cherokee를, 아니 Jeep 그 자체의 진가를 처음 제대로 느껴본 건 2002년이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자동차 저널리스트 자격으로 Grand Cherokee를 여러 번 시승했다. 꽤 청한 국도와 고속도로뿐 아니라 산길과 빗길에서도 달려보았고 때로는 언덕과 진흙탕을 헤치는 오프로드 체험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 해, 태국에서 열린 'Jeep Adventure' 행사에서 Grand Cherokee를 경험하고 난 이후 이전에 알던 나의 Jeep에 대한 지식은 고작 서툰 어치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빽빽한 열대우림과 진창길, 늪지대와 바윗길이 가득한 곳. 이 강변 칸차나부리 지역에서의 시승 경험은 Jeep Grand Cherokee의 진가를 뽐낼 깊이 새기는 강렬한 기억이 되었다. Jeep가 왜 Jeep인지 어쩌서 오프로드의 제왕으로 불리는지 새삼 깨닫게 된 기회였다. 하지만 단지 보통의 SUV라면 엄두를 내지 못할 험로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오프로드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반도로에서의 편안함과 험로에서 보여주는 안정감의 균형이 더욱 놀라웠기 때문이다. 어느 때나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야말로 전천후 럭셔리 SUV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Grand Cherokee는 Jeep 브랜드를 리드하는 대형 SUV로 1992년 첫선을 보인 이후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600만 대가 넘는 인기 모델이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뿐 아니라 다양한 편의 장비와 편안한 온로드 주행성, 연비 효율성까지 갖춰 가족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용도로도 더없이 훌륭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만난 Jeep Grand Cherokee 모델은 2019년형 Limited-X 3.6 모델이다. 심플한 컬러와 요소마다 적용된 차별화된 걸모습에서부터 터프함과 강인함이 물씬 느껴진다. 기존 Grand Cherokee가 화려한 외관을 뽐내기보다 내면의 가치와 유용성을 보여줬다면 이 모델은 좀 더 특별한 매력으로 어필

한다. 고성능 모델인 Grand Cherokee SRT 디자인을 차용한 듀얼 히트 익스트랙터를 얹은 SRT 디자인의 후드와 Jeep, 4x4, Limited-X로 이뤄진 다양한 배지, 세븐 슬롯 그릴 테두리가 적용됐고, 전후면 램프 베젤은 저광택 진회색 크리스탈 악센트로 마감됐다.

사이드 미러 커버, 차량 측면부 DLO 몰딩, 루프레일과 상단 그릴은 광택이 도는 블랙 컬러로 처리했고 크롬 재질의 듀얼 블랙 머플러 팁과 20인치 저광택 진회색 크리스탈 휠에 존재감을 더하는 피렐리 타이어를 끼웠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차를 특별하게 보이기 위한 이려저려한 디테일 구성을 읽어낼 수 있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첫인상은 한 마리 검은 경주마 이미지다. 압도적인 역동성과 터프함이 가득하다.

실내 공간 역시 외관의 특별함을 그대로 가져왔다. 블랙 컬러의 인테리어로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질감 좋은 가죽 시트와 리퀴드 티타늄으로 강조된 스티어링 휠 베젤과 도어 핸드 베젤은 특별한 감성을 완성시켜준다. 무엇보다 Limited-X는 외장 컬러를 블랙과 화이트 2종으로 한정해 선택 가능하며, 한정판으로 들어와 소장 가치를 더했다.

오랜만의 시승이지만 낯설지 않고 편안하다. 저속에서 정숙함 역시 그대로다. 천천히 시내 도로를 주행할 때 스티어링 느낌은 부드럽고 가속 반응 또한 즉각적이면서 산뜻하다. 비즈니스맨의 업무용이나 주부의 일상용 자동차로 사랑받는 이유다. 넉넉하고 편안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실내. 그리고 안정감 있는 주행성. 이런 기대는 여지없었다. 사실 차를 이용하는 시간의 8할 이상은 이런 조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편안하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주는 드라이브 세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외곽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넉넉한 배기량이 전해주는 파워풀한 가속이 박진감



Photographer Kim Joo Won





넘친다. 8단 자동변속기에 맞물린 V6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35.4kg·m의 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전의 Grand Cherokee를 몰았을 때 감탄한 것은 사실 오프로드 성능보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정된 고속 주행성이었다. Jeep 배지에서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프로드 주행성이겠지만 그보다 기대 이상의 온로드 주행 안정성은 반전 매력이었다.

사실 이런 깨달음이 문득 겹쳐진 것은, 대부분의 Jeep 운전자들이 주로 운행하는 곳은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온로드 안정성은 당연히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Grand Cherokee는 일상용 차량으로서 기본기가 탄탄한데,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고속으로 올려보면 그 진가를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다. 묵직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핸들링은 스포츠 주행에서도 찰진 운전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Limited-X의 크기와 기본 구성은 Grand Cherokee와 같다. 휠베이스는 2920에 달해 실내공간이 넉넉하고 뒷자리 무릎 공간도 넓다. 뒷좌석은 최대 60도까지 기울일 수 있고 트렁크 용량은 800리터에 달해 장거리 가족여행을 떠나기에 이만한 차도 없다. 2열 시트를 접으면 1689리터로 넓어지는 트렁크는 어지간한 이삿짐을 나르기에 손색없을 만큼 유용하다.

이들간, 서울 도심과 외곽도로를 달리며 편안하면서도 경쾌한 운전 재미를 흠뻑 느꼈다. 존재감 있는 독특한 디자인 구성 덕분에 집중되는 사람들의 시선도 은근히 즐겁다. 국도 근방의 흙길을 천천히 달리며 문득 숲 속으로 들어가 이 차가 가진 모든 역량을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구석구석 터치가 멋진 외장을 굽히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떤 험로에서든 기대만큼,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리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질문한다. 운전하면서 험로에 빠질 일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때를 위해 모든 성능을 갖추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고, 그러면 속으로 되물게 된다.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고난은 얼마나 자주일 것 같냐고, 그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냐고, 그렇게 되묻는다. Jeep의 자신감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Jeep**



Jeep Camp 2019

지상 최대의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Jeep Camp 2019'가 강원도 휘닉스평창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Jeep리는 공통분모로 모인 1000여 명의 고객들이 하나되었던 현장의 분위기와 뜨거운 열기를 함께 만나보자.



전 세계 최초로 4WD 차량을 선보인 Jeep가 진행하는 'Jeep Camp'는, 매년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열리는 행사다. Jeep 오너라면 꼭 참가하고 싶은 워너비 이벤트로, 오프로드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주행 코스와 가족 단위로 즐기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번 'Jeep Camp 2019'는 강원도 휘닉스평창에서 9월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됐다. 비와 바람이 동반된 날씨였지만, Jeep의 성능을 제대로 테스트하기에 적당했다. 이른 아침부터 웰컴 데스크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Jeep의 행렬이 이어졌다. 등록을 마치고 해당 차량에 데칼을 부착하는 것으로 Jeep의 이름표를 대신했다. 더불어 푸짐하게 구성된 웰컴 패키지를 받은 참가자들은 다음 코스인 Jeep Doctor에서 기본적인 차량 점검과 타이어 공기압 등의 체크를 받았다.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은 오프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 코스'로, Jeep 본연의 터프함과 진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여느 자동차로는 좀처럼 오르기 힘든 경사의 스키 슬로프는 비의 영향으로 제법 질고 난이도 있는 길로 바뀌었지만, Jeep의 풀타임 4x4 시스템으로 가볍게 올랐다. 정상에 향해 길게 늘어선 Jeep 행렬을 보고 있자니, 벽차오르는 'Jeep부심'은 비단 한 사람만 느끼지 않았으리라.

어드벤처 파크에 도착하자, 입구에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는 뜻말이 서막을 뚫고 울려주는 듯했다. Jeep에게 이만한 놀이동산이 어디 있을까 싶게, 엔진의 박동이 스티어링휠을 타고 전해졌다. 어드벤처 파크는 통나무 서스펜션을 비롯해 락 크롤링, 시소, 모굴 코스 등 15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진행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하나씩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이보다 한단계 높은 와일드 코스는 Jeep Wrangler 전용으로, 자작나무가 즐비한 깊은 산길을 굽이굽이 돌며 오감이 즐거운 드라이빙을 만끽했다.

Jeep로만 가능한 익스트림 코스 'Rubicon 수로' 체험은 상상 그 이상의 짜릿함과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흙탕물을 뿜어올리며 내달리는 Jeep는 차라리 한 마리 들소에 가까웠다.

비오는 토요일 밤, 야외에서 예정된 프로그램과 공연은 안전을 위해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고, 장소와 무관하게 좌석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개그맨 윤정수의 진행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은 'Jeep Stage'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참가자들의 성별 팔씨름 대회가 열렸고, 개그맨 김재우의 깜짝 참여로 승부욕이 더욱 불타는 경기였다. 또 가수 코요태와 김연우의 공연으로 흥과 감성이 어우러져 Jeep 가족이 모두 하나 되는 귀한 추억을 쌓기도 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Jeep Camp 2019'는 Jeep가 추구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아낌없이 나누는 시간이었다. 오프로드 드라이빙의 진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물론, Jeep를 소유한 사람과 앞으로 소유할 잠재 고객까지 두둑한 팬십까지 품게 됐다.

'Jeep Camp 2019', 즐거운 추억과 시간으로 Jeep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이제 다시 내년을 기약할 시간이다. See you again! **Jeep**

Interview



정승인 지디시스 대표

3세대 Jeep Wrangler 오너 정승인 씨는 Jeep Camp 3회 연속 참가자로, 어린 시절 영화 속 맥가이버를 보며 Jeep의 로망을 키웠다고 한다. '따로 또 같이'라는 단어가 꼭 어울리는 Jeep는, 이런 축제를 통해 하나로 단결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개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양면성까지 고루 갖췄다고 강조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정을 듬뿍 받은 그의 Jeep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승인 에디션으로, 이번 Jeep Camp 2019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Charisma in Social Media

Social Media 코너는 Jeep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SNS를 통해 넘치는 아우라와 카리스마로
오너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Jeep를 모았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감춰지지 않는
Jeep만의 각 잡힌 카리스마는 인스타그램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오너들이 직접 촬영한 Jeep의 멋을 Social Media에서 만나보세요.



@ 6seek
#랭글러매니아 #wranglermania #wrangler #rubicon #랭글러 #Rubicon #랭글러j #i랭글러
#jlrangler #2019j #제주노을 #제주하늘 🌄



@ bejakga
태풍이 지나서 그런지 저녁엔 슬쩍 선선한 척
하는 날씨예요. 그덕에 첫 두따를 하고 드라이브
다녀왔네요!
#베작가 #여가부부 #wranglermaniakorea
#베작가아이폰xs



@ jeepragy
#짚스타그램 오렌지색
#Rubicon 생각없이 드라이브 #보령시
#장현저수지 뛰어노는 고라니도 보고 ㅋ
#jeeplife



@ saerom.h
해 짹짹 더운 날 해변에서 창문 내리고
파도소리 들으면 꿀인데
벌써 여름 끝인가 힝
#jeep #레니게이드



@ pharos
Jeep 랭글러 Rubicon 파워탑을 선택한 이유.
천장 열고 올라가서 노을을 볼 수 있는
낭만과 여유.
#wrangler #rubicon #powertop
#차박캠핑 #오프로드



@ rang_y_
굳이 매달려 찍겠다고 아가들 🧡 #대롱대롱
#초딩이들 #공주 #캠핑 #힐링 #끝 #집으로
#가즈아 #Jeep #랭글러 #Rubicon #oillllo
#jeepcamp #jeeplife #wranglermaniakorea
#camping #autocamping #travel #jeep



@ camper_totoro
#캠핑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옳다"
#랭글러 #랭글러라이프



@ dondollee
#Rubicon파워탑 #Rubicon #랭글러 #jeep
#wranglerrubicon



@ shanayun
하늘이 예쁜 시간 💕
#Jeep #wrangler #지프 #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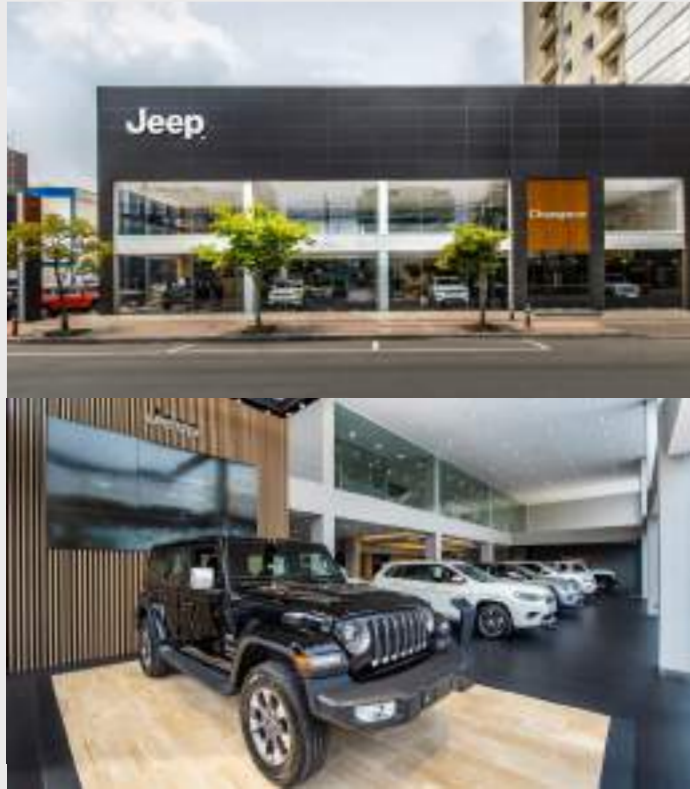
참여방법

여러분의 Instagram에 Jeep와의 일상을
태그 #jeepkorea와 함께 올려주세요.
채택된 분들께 커피 기프트콘과 해당호 매거진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Jeep 전용 창원 전시장 OPEN

지난 6월 확장 이전으로 리뉴얼한 창원 전시장은 Jeep 전용 15번째 매장으로 창원 및 경남 지역의 고객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약125평의 단독 건물로 Jeep만큼이나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하는 창원 Jeep 전시장은, 터치식 스펙 보드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 존(Consulting Zone)'에서는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안락한 라운지로 고객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로 차별화했다. Jeep의 대표 차량 모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히어로 카 존(Hero Car Zone)을 비롯하여 다양한 옵션을 적용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팅 라운지(Fitting Lounge)', 차량 출고를 위한 '딜리버리 존(Delivery Zone)' 등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던 블랙과 내추럴 우드 인테리어로 Jeep만의 DNA와 아웃도어 감성까지 즐길 수 있는 창원 전시장은 수입차 전시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마산해안도로에 위치해 있어, 수입차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향후 고객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87



Jeep 전용 동탄 전시장 OPEN

16번째 Jeep 전용 전시장, 동탄 전시장이 10월에 신규 오픈한다. 430㎡(약 130평) 규모의 단독 신축 건물로, 차량 전시 공간과 컨설팅 룸, 고객 라운지가 오픈 구조로 이루어져 보다 넓은 개방감을 제공한다. 전시장 내부는 지프의 대표 차량 모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히어로 카 존(Hero Car Zone)'과 구매 전 다양한 옵션을 맞춤형으로 선택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피팅 라운지(Fitting Lounge)',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컨설팅 존(Consulting Zone)' 등으로 꾸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맞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인 동탄 테크노밸리에 자리잡은 동탄 Jeep 전용 전시장은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오산, 용인, 안성 등 경기 지역 고객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77-5



Jeep New Cherokee Trailhawk, 2019년 11월 출시 예정

Jeep는 지난 3월 '2019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선보인 'New Cherokee Trailhawk'를 올 11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태어난 New Cherokee Trailhawk는, 트레일 레이티드(Trail Rated®) 인증을 받은 배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 배지는 군용차 평가 기관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성능을 인정받고 극한의 코스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이번 New Cherokee Trailhawk 진정한 Jeep 4x4 시스

템은 물론, 스타일리시한 외관 디자인과 8.4인치 터치스크린·가죽트림·Uconnect 등의 프리미엄 내부 기능까지 고루 갖췄다. 또한 Trailhawk만의 상징인 블랙 컬러의 후드 데칼과 측면의 레이티드 배지, 후면의 독수리 모양의 Trailhawk 배지를 부착하고 범퍼 부분도 예리한 느낌이 들도록 처리했다. 이로써 New Cherokee 라인업에도 Trailhawk 트림이 추가되어, 사륜 구동의 거친 매력을 Cherokee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WRANGLER



Feature

WRANGLER

- SKY ONE-TOUCH™ 파워 탑 (RUBICON HIGH POWER TOP 모델)
- 셀렉-트랙[®](SELEC – TRAC[®]) 4WD 시스템 (SPORT,OVERLAND 모델)
- 4:1 락-트랙 HD 풀타임 4WD 시스템 (RUBICON 모델)
- 새로운 파워돔 디자인, 리어 토우 후크, 탈부착 가능한 도어와 접이식 윈드실드
- 하드 스페어 타이어 커버, 도어 사이드 스텝 (OVERLAND 모델)
- 앞좌석 열선 적용 가죽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 유커넥트(UCONNECT[®]) 8.4인치 터치스크린, 순정 한국형 내비게이션(TPEG)*
- PARKSENSE[®] 전/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BSM)*
-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PARKVIEW™ 후방 카메라
- 애플 카플레이 (APPLE CARPLAY[®]) 및 안드로이드 오토 (ANDROID AUTO)

*RUBICON 전모델 / OVERLAND 모델 적용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SPORT 2DOOR 2.0	₩ 46,400,000
SPORT 4DOOR 2.0	₩ 49,400,000
RUBICON 2DOOR 2.0	₩ 55,400,000
RUBICON 4DOOR 2.0	₩ 58,400,000
OVERLAND 4DOOR 2.0	₩ 61,400,000
RUBICON 4DOOR POWER TOP	₩ 61,900,000

배기량 | 공차중량
SPORT 2DOOR 2.0 1,995cc | 1,830kg
SPORT 4DOOR 2.0 1,995cc | 1,940kg
RUBICON 2DOOR 2.0 1,995cc | 2,000kg
RUBICON 4DOOR 2.0 | RUBICON 4DOOR POWER TOP 1,995cc | 2,120kg
OVERLAND 4DOOR 2.0 1,995cc | 2,010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SPORT 2DOOR 2.0
9.6km/ℓ | 4등급(도심연비:8.9km/ℓ, 고속도로연비:10.8km/ℓ) | 179g/km
SPORT 4DOOR 2.0
9.0km/ℓ | 5등급(도심연비:8.3km/ℓ, 고속도로연비:10.0km/ℓ) | 193g/km
RUBICON 2DOOR 2.0
8.7km/ℓ | 5등급(도심연비:8.1km/ℓ, 고속도로연비:9.5km/ℓ) | 201g/km
RUBICON 4DOOR 2.0 | RUBICON 4DOOR POWER TOP
8.2km/ℓ | 5등급(도심연비:7.7km/ℓ, 고속도로연비:8.8km/ℓ) | 210g/km
OVERLAND 4DOOR 2.0
9.0km/ℓ | 5등급(도심연비:8.3km/ℓ, 고속도로연비:10.0km/ℓ) | 193g/km

RENEGADE



Feature

RENEGADE

-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9단 자동변속기
-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 (ESC)
- 언덕 밀림 방지 (HAS)
- 열선 가죽스티어링 휠, 앞좌석 열선 시트
- ParkView™ 후방 카메라 (가이드 라인)*
- 사각 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SM)*
-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파크센스 (ParkSense[®])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mited High)
- LED프로젝터 헤드램프/테일램프 (Limited High)
- 유커넥트 (Uconnect[®]) 8.4인치 터치스크린*
- 7인치 TFT LED 풀-컬러 EVIC 디스플레이*
- 애플 카플레이 (Apple CarPlay[®]) 및 안드로이드 오토 (Android Auto)

*LIMITED 모델 적용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LONGITUDE 2.4 FWD	₩ 33,900,000
LIMITED 2.4 FWD	₩ 36,900,000
LIMITED 2.4 AWD	₩ 39,900,000
LIMITED HIGH 2.0 AWD	₩ 43,400,000

배기량 | 공차중량
LONGITUDE 2.4 FWD | LIMITED 2.4 FWD
2,360cc | 1,460kg
LIMITED 2.4 AWD 2,360cc | 1,585kg
LIMITED HIGH 2.0 AWD 1,956cc | 1,665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LONGITUDE 2.4 FWD | LIMITED 2.4 FWD
10.0km/ℓ | 4등급(도심연비:8.9km/ℓ, 고속도로연비:11.9km/ℓ) | 171g/km
LIMITED 2.4 AWD
9.2km/ℓ | 5등급(도심연비:8.0km/ℓ, 고속도로연비:11.3km/ℓ) | 188g/km
LIMITED HIGH 2.0 AWD
11.8km/ℓ | 3등급(도심연비:10.5km/ℓ, 고속도로연비:13.7km/ℓ) | 164g/km

COMPASS



Feature

COMPASS

• LED 시그니처 바이제는 HID 헤드램프 및 LED 테일램프

• Jeep Active Drive AWD 시스템

• 셀렉-터레인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9단 자동변속기

• 커맨드뷰 (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유커넥트 (Uconnect[®]) 8.4인치 터치스크린*

• 애플 카플레이 (Apple CarPlay[®]) 및 안드로이드 오토 (Android Auto)

• 9-스피커 Alpi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앞좌석 열선 시트 및 운전석 8-방향 파워 시트

• 7인치 TFT 컬러 EVIC 디스플레이*

• 사각 지대 모니터링 시스템(BSM)*

•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ParkView[®] 후방 카메라 및 ParkSense[®]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스톱 & 스타트

*LIMITED 2.4 모델 적용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LONGITUDE 2.4

₩39,900,000

LIMITED 2.4

₩43,400,000

배기량 | 공차중량

LONGITUDE 2.4 | LIMITED 2.4 2,360cc | 1,640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LONGITUDE 2.4 G | LIMITED 2.4

9.3km/ℓ | 5등급 (도심연비:8.2km/ℓ, 고속도로연비:11.2km/ℓ) | 184g/km

Feature

CHEROKEE

• Jeep Active Drive II 4WD 시스템*

• 셀렉-터레인(Selec - 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패들 시프트 적용 9단 자동 변속기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고(ACC)**

•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보행자 감지 비상 제동)**

• 차선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LDW Plus)**

• 파크센스 (ParkSense[®]) 평행/직각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Longitude 2.4 제외)

• 파크센스 (ParkSense[®]) 전/후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Longitude 2.4 제외)

• LED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 안개등, 데이타임 러닝 램프

• 뒷좌석 열선 시트 (Overland 2.2 적용)

• 프리미엄 나파 (Nappa) 가죽 시트

• 핸드프리 파워리프트게이트

• 적재 공간이 향상된 트렁크

• 애플 카플레이 (Apple CarPlay[®]) 및 안드로이드 오토 (Android Auto)

*LIMITED, OVERLAND **LONGITUDE 2.4 HIGH, OVERLAND 모델 적용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LONGITUDE 2.4

₩44,900,000

LONGITUDE HIGH 2.4

₩47,900,000

NEW LIMITED 2.2

₩56,900,000

NEW OVERLAND 2.2

₩58,900,000

배기량 | 공차중량

LONGITUDE 2.4 | LONGITUDE HIGH 2.4

2,360cc | 1,830kg

NEW LIMITED 2.2 | NEW OVERLAND 2.2

2,184cc | 2,010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LONGITUDE 2.4 | LONGITUDE HIGH 2.4

8.6km/ℓ | 5등급(도심연비:7.2km/ℓ, 고속도로연비:11.3km/ℓ) | 200g/km

LIMITED 2.2 | OVERLAND 2.2

11.1km/ℓ | 4등급(도심연비:9.9km/ℓ, 고속도로연비:12.9km/ℓ) | 175g/km

CHEROKEE



Feature

CHEROKEE

• Jeep Active Drive II 4WD 시스템*

• 셀렉-터레인(Selec - 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패들 시프트 적용 9단 자동 변속기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고(ACC)**

•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보행자 감지 비상 제동)**

• 차선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LDW Plus)**

• 파크센스 (ParkSense®) 평행/직각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Longitude 2.4 제외)

• 파크센스 (ParkSense®) 전/후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Longitude 2.4 제외)

• LED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 안개등, 데이타임 러닝 램프

• 뒷좌석 열선 시트 (Overland 2.2 적용)

• 프리미엄 나파 (Nappa) 가죽 시트

• 핸드프리 파워리프트게이트

• 적재 공간이 향상된 트렁크

• 애플 카플레이 (Apple CarPlay®) 및 안드로이드 오토 (Android Auto)

*LIMITED, OVERLAND **LONGITUDE 2.4 HIGH, OVERLAND 모델 적용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LONGITUDE 2.4

₩44,900,000

LONGITUDE HIGH 2.4

₩47,900,000

NEW LIMITED 2.2

₩56,900,000

NEW OVERLAND 2.2

₩58,900,000

배기량 | 공차중량

LONGITUDE 2.4 | LONGITUDE HIGH 2.4

2,360cc | 1,830kg

NEW LIMITED 2.2 | NEW OVERLAND 2.2

2,184cc | 2,010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LONGITUDE 2.4 | LONGITUDE HIGH 2.4

8.6km/ℓ | 5등급(도심연비:7.2km/ℓ, 고속도로연비:11.3km/ℓ) | 200g/km

LIMITED 2.2 | OVERLAND 2.2

11.1km/ℓ | 4등급(도심연비:9.9km/ℓ, 고속도로연비:12.9km/ℓ) | 175g/km

GRAND CHEROKEE



Feature	Price
GRAND CHEROKE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 Natura-Plus 최고급 가죽 / 오픈 포어 우드 트림**	LIMITED 3.6 ₩61,900,000
• 앞/뒷좌석 열선 가죽 시트 및 앞좌석 통풍 시트	OVERLAND 3.6 ₩69,400,000
• 커맨드뷰(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SUMMIT 3.6 ₩73,400,000
• Harman kardon® 19-스티커 하이퍼포먼스 사운드 시스템**	OVERLAND 3.0 ₩78,400,000
• 쿼드라-트랙II (Quadra-Trac®) 4WD 시스템	SUMMIT 3.0 ₩82,400,000
• 파워 리프트게이트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FCW Plus)*	
• 차선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 (LDW Plus)	
• 사각 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SM) 및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및 안드로이드 오토 (Android Auto)	
*OVERLAND, SUMMIT/ **SUMMIT 모델 적용	
	배기량 공차중량 LIMITED 3.6 3,604cc 2,205kg OVERLAND 3.6 3,604cc 2,270kg SUMMIT 3.6 3,604cc 2,255kg OVERLAND 3.0 2,987cc 2,440kg SUMMIT 3.0 2,987cc 2,475kg
	복합연비 등급 CO ₂ 배출량 LIMITED 3.6 OVERLAND 3.6 SUMMIT 3.6 7.9km/ℓ 5등급 (도심연비:6.9km/ℓ, 고속도로연비:9.5km/ℓ) 223g/km
	OVERLAND 3.0 SUMMIT 3.0 9.3km/ℓ 5등급(도심연비:8.3km/ℓ, 고속도로연비:10.7km/ℓ) 212g/km



서울

❶ 씨엘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24
연락처 1588-4450

❷ 렉스모터스 성동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28
연락처 02-462-3131

❸ 프리마모터스 영등포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30길 30
연락처 02-6925-0393

인천

❹ JK 모터스 인천 서비스센터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13
연락처 032-881-3006

경기도

❺ 프리마모터스 일산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50-20
연락처 031-922-0117

❻ 보성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9
연락처 031-237-4230

❼ 빅토리오토포티브 분당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32
연락처 031-896-0005

강원

❽ 강원모터스 원주 서비스센터
위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14
연락처 033-766-6301

충남

❾ 비전오토모빌 천안 서비스센터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3-6
연락처 041-523-2211

대전

❿ 비전오토모빌 대전 서비스센터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65
연락처 042-637-8000

전북

❶ 라온모터스 전주 서비스센터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강2길 3-26
연락처 063-271-7300

광주

❶ 선일모터스 광주 서비스센터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39
연락처 062-676-8371

경북

❶ 경북모터스 포항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30
연락처 054-283-5336

대구

❶ 대경모터스 대구 수성구 서비스센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망로 177
연락처 053-564-0110

울산

❶ 우진모터스 울산 서비스센터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166번길 5
연락처 052-272-7600

부산

❶ 우진모터스 부산 서비스센터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01
연락처 051-704-0065

경남

❶ 대경모터스 창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3길 1
연락처 055-296-1005

제주

❶ 프리마모터스 제주 서비스센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2
연락처 064-745-4588

※ 제품 사진, 사양, 색상, 가격 등의 정보는 본 매거진이 출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까운 Jeep® 공식 전시장에 연락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Jeep Story 신청

계절의 시작과 함께 발간되는
매거진 <Jeep Story>의 정기 구독을 원하는 분은
성함과 연락처를 info@jeep.co.kr로
보내주세요.

www.jeep.co.kr